

광주 TCS 국제학교 확진자 동선도 역학조사도 ‘깜깜’

시설 간 교류·생활상 등 조사 시급
100여명 수년째 합숙 인지 못 해
합숙인원 122명 중 109명 확진
관리 소홀 감염자 건물 들락날락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 커녕 확진자 관련 이동동선 파악과 접촉자 확인 등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감염자들은 격리 중인 학교 건물 밖을 오고가기도 했지만, 전혀 통제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27일 광주시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IM 선교회 관련 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에선 교사 25명, 학생 97명 등 122명이 합숙을 해왔으며, 교사 전원과 학생 79.4%(77명)가 확진됐다. 또 같은 건물 교회 교인 7명도 추가돼 전체 확진자는 109명을 기록했다. 범위를 합숙 인원으로만 좁히면 122명 중 102명(83.6%)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대규모 확진 사태가 빚어진 것은 이들이 교육장, 교회, 교육장 주변 광산구 장덕동과 진곡산 단 빌라 등 2곳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집단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방 크기에 따라 한방에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1명까지 숙식을 해결하는 등 밀폐·밀접·밀집 등 “3밀 환경”에 노출됐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추정이다. 특히 학생들 가운데 20여명은 겨울방학을 맞아 단기 합숙에 참여했고, 나머지는 1년에서 4년 이상 단체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광주 TCS 국제학교 합숙생과 교직원들이 27일 낮 생활치료시설 입소를 위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도 일부 확진자 등을 통해 전해진 추정 수준의 정보일 뿐 교육 과정이나 학생 등의 생활상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이 일부 교사들에게 전해들은 생활상은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한달에 한번 외출이 허용됐으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생활자 중 80% 이상이 감염된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주장하는 이들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주말 중 귀가 여부, 외출

상황 등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확진자 수가 너무 많고 조사 범위도 넓어 제대로 된 역학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확진자 모두가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된 상황에서 최초 감염원과 전파 경로 등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역학 조사의 핵심 중 하나는 전국적인 감염 사태를 물고온 IM 선교회 관련 시설 간 교류 여부다. 각 시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전과 광주, 강원 홍천, 경기 안성 등에서 관계자들의 확진이 동시에 발생하는 정황으로

미뤄 교류 활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홍보자료 등에서 지난해 12월 각 지역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내용이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 중 54명이 수도권 등 광주 외 지역 출신인 배경도 역학조사 대상이다. 감염병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던 수도권에서 학생들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방역당국의 역량으로 다양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애초 100명 넘는 인원

이 드나들며 합숙하는데도 지자체, 교육청 등 어느 곳에서도 실태조사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방역당국은 다른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고 난 뒤에야 전수검사를 받아 대규모 확산을 뒤늦게 확인했다.

특히 아직까지도 종교시설인지, 대안학교인지, 학원인지 시설 분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6일 밤에는 이 학교 확진자들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등 어이없는 상황도 목격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이재명 독주...대선구도 ‘1강 2중 체제’ 굳어지나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이재명 28.7%·윤석열 14.0%·이낙연 11.4%

가상대결 이재명 45.9% vs 윤석열 30.6%·이낙연 34.8% vs 윤석열 33.8%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위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1강 2중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를 꼽은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윤 총장 14.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11.4%였다.

이 지사는 이 대표의 뒷발 격인 호남에서도 39.2%를 얻어 29.4%를 얻은 이 대표를 10%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경북에서도 이 지사는 22.4%, 부산·울산·경남에서 22.3%를 얻어, 각각 19.4%, 21.9%를 얻은 윤 총장을 앞섰다. 이외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8%), 무소속 홍준표 의원(4.2%), 정세균 국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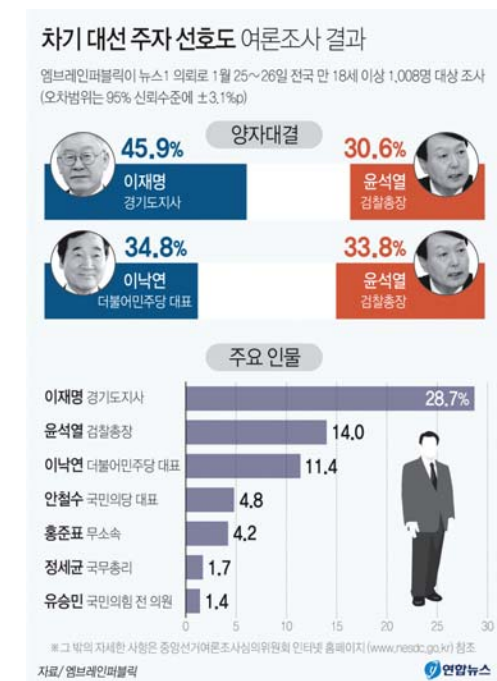
총리(1.7%),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1.4%)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선에서의 양자 대결에서도 이 지사가 윤 총장을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이 대결할 경우 어느 쪽에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이 지사가 45.9%, 윤 총장이 30.6%의 지지를 받았다.

두 주자 간 격차는 15.3%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 총장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34.8%, 윤 총장이 33.8%로 나타났다. 1%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다.

‘내일이 대선이라면 어느 당 후보를 뽑겠느냐’는 질문에는 ‘여당후보’라는 응답이 38.5%로, ‘야당후보’ 32.9%보다 많았다. 반면 4·7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1.0%로 나타났다.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



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중 정상 통화...시진핑 “비핵화 노력 지지”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 개최도 공감

靑, 바이든에 앞선 통화 확대해석 경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실현은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비핵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통화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소개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하는 등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높이 평가한 데 이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번 통화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말로 화답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가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에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에 두 나라



가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시 주석도 “중국은 한국의 중한일 정상회의의 개최를 지지하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조속한 개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중정상의 통화가 한미 통화보다 먼저 이뤄진 것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통화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논의된 신년인사 차원의 통화”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한미정상 통화 계획에 대해서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속한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생각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민국 청정일번지 땅끝해남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 청정자연 | 청정먹거리 | 청정행정 |

#땅끝전망대